

《나는 기생이다》를 통해 다시 만난 ‘기생’ ‘기생’ 이 아닌 ‘여자’로서의 그녀들을 돌아볼 시간

글_조연주(문학동네 편집부 차장)

그녀를 만나는 것은 조금은 특별한 작업이었다.

그동안 ‘기생’이라 하면, 편집자 역시 황진이나 논개를 떠올리는 것이 고작이다. 예인으로서의 그녀들을 떠올리며, 막연히 조금은 근사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어렴풋이 늙은 창기를 떠올리며 역시 조금은 애잔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간간이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 그녀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들은 여전히 내게는 멀리 있었고, 살아 숨쉬는 ‘여자’가 아닌 일반 명사로서의 ‘기생’이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생은 그러나, ‘여자’였다. 누구보다 자이고 싶었던…

기생이 되다

이내 행사 생각하니 호부호모(呼父呼母) 겨우 하니
산과 물 가르치고 저적저적 걸음할 때 초무(初舞) 검무(劍舞) 고이하다
명선(名仙)으로 이름하여 칠팔 세에 기생되니 이르기도 이르구나
명월(明月) 같은 이내 얼굴 선연(鮮妍)하여 명선인가
명만천하(名滿天下) 큰 이름이 선종신(善終身)할 명선인가
사모에게 수청들라 부인 행차 시종하랴
이십이 늦잠거든 십이 세에 성인(成人)하니
어디 당한 예절인지 짐승과 일반이라

시대를 잘못 만나, 부모를 잘못 만나 열두 살 어린 나이에 “짐승과 일반”으로 타인에 의해 ‘성인(成人)’(성관계)하였으나, 그녀는 본래 ‘기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었다.

정병설 선생님이 찾아낸 《소수록》은 기생이 직접 지은 일종의 기생 문학작품집이다. 그 동안 그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씌어진 글들은 -그것은 아마도 남성의 시각에서 씌어진 것들

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 없지 않았으나 기생이 직접 목소리를 낸 작품들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장편가사, 토론문, 시조, 편지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집은 모두 종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기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었다.

천인이면서도 우아함을 뽐내고, 하층이지만 높은 교양 수준과 예술성을 자랑하였고,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꽃이지만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기 영역이 있었던 그녀들은 그 존재 자체가 모순적이었으며, 한편에서는 저급한 창녀라고 무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준 높은 예인으로 선망하는, 그들을 보는 시각 역시 모순적이었다. 남자들은 기생을 멀리하면서도 가까이 하고자 했고, 여성들은 알보면서도 질투하였다. 이렇게 멀리와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목소리를 낸 그녀들의 주장은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서글펐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생도 사람이다’라는 것. 이러한 기생의 외침은 비단 남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여자들도 다들 바 없었다. 남성들이 기생을 해어화(解語花), 곧 ‘말하는 꽃’으로 보았다면, 여성들은 이들을 ‘여우’로 지목하였다. 꽃이건 여우건 기생을 물화(物化)하고 타자화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랬기에 그들은 ‘나는 기생이

다’ ‘나도 사람이다’ 외쳤던 것이다.

이제 ‘여자’로서의 그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이 아닐지. **▶▶**

